

국민 10명 중 7명 “방송대 운영법 필요”

KNOU위클리, 성인대상 설문
현 체제, 특수성 반영 어려워
‘박사과정 개설’ 50.1% 찬성



방송대 전경 /방송대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방송대 운영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방송대 ‘로스쿨 설치’와 ‘박사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하는 ‘KNOU위클리’ (원장 이기재, 이하 KNOU위클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이하 방송대 국민인식조사) 결과, 68.4%가 방송대 운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방송대 운영법은 1972년 개교한 방송대가 국립대임에도 ‘한국방송통신대

학 설치령’으로 운영되면서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지난해 2월 정세균 의원(현 국무총리)이 대표발의 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7월 말 20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방송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방송대의 ‘로스쿨 설치’에 대한 찬성도 전체 국민의 절반(53.2%)을 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졸 이하 층과 대학원 이상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박사과정 개설’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50.1%)이 찬성했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사회적 교육 약자층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로스쿨 설치·박사과정 개설 두 현안에 대한 20대 이하와 30대의 찬성률은 전체 찬성 비율보다 낮았다. 로스쿨 설치의 경우, 20대 이하는 46.2%, 30대는 46.1%를, 박사과정 개설에 대해서는 20대 이하 40.9%, 30대 48.2% 정도가 찬성하는데 그쳤다.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은 원격대학은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원격대학교는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는데,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수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에 공동발의된 ‘방송대 운영법’에도 박사과정 설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원격고등교육보장을 위해 정부가 방송대에 지원한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수임용 확대와 시설 개선 지원(34.4%) ▲전 국민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재정적 지원(23.0%)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20.5%) ▲공적 역할 강화할 수 있게 중앙원격교육지원센터로 지정(12.6%) 순으로 응답했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제21대 국회에서 방송대 운영법이 입법 발의됐고,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방송대 운영법이 확정되면 대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송대가 국가와 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사과정 개설에 관해서 류 총장은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팬데믹 시대에 박사과정에서 온라인 교육이 불가하다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면 원격교육에서도 박사과정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왼쪽) 임종재 총장,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 /국민대

국민대-서울시 체험형 통일교육 맞손

국민대(총장 임종재)가 서울시민의 통일의를 고취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3일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통일부로부터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국민대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념·세대·계층을 아우르면서도 평화·통일에 관한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체험형 사업을 보급·확산하고 있다.

임종재 총장은 “평화·통일교육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시민들이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통일교육센터를 맡고있는 국민대는 ‘통일뮤지컬’, ‘평화의식의 표출된 디자인 공모전’, ‘서울시민들과의 사회적 대화’, ‘미래 리더인 대학생 및 청년세대들이 주도하는 동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서울시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선도적 특별장학금 지급

특별전입금 포함 25억 재원 마련
예년과 동일 수준 장학생 선발



드론으로 본 순천향대 전경 /순천향대

순천향대의 선도적인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대학이 학생 학비 부담 경감과 학업 증진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 학교법인인 특별전입금을 포함한 25억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해 장학금 지급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근 10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사정이 안 좋아지며 대부분 대학이 장학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향대가 장학금 규모를 늘리며 대학가 교감이 되고 있다.

앞서, 순천향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실납입 수업료의 10%를 개인별 특별장학금으로 마련했다. 수혜 대상은 약 8000여명의 재학생이 해당되며, 전체 장학금액은 약 25억원으로 학교법인 특별전입금과

장학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했다. 계열별로는 개인당 약 34~50만원선의 금액을 특별장학금으로 마련된 가운데 지난 8월 졸업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실납입 수업료에서 해당 금액을 감면했다. 또 2학기에 휴학한 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이를 적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타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2학기 성적우수장학금을 폐지하는 것과 달리 순천향대는 성적우수장학금을 포함한 교내 장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예년과 동일하게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언택트로 학생건강 챙기세요”

‘언택트 Health 인’ 교육자료 보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언택트 Health 인(人) 원격 보건교육 자료’를 제작해 7일부터 보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2학기도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면서다.

‘언택트 Health 인(人) 원격 보건교육’ 자료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

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맞춤형 원격 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자료는 총 31차시의 수업 동영상과 교사용 PPT 및 지도서로 구성됐다. ▲초등학생용 자료(11차시, 코로나19 대응 및 시민의식) ▲중학생용 자료(10차시, 건강권과 성적 권리) ▲고등학생용 자료(10차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생활 습관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에세이 과제로 대인관계능력 촉진

장성민 국어교육과 교수

과제수행 집단 대인관계능력 도움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하대는 장성민 국어교육과 교수(사진)가 ‘리터러시연구(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에 게재된 논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촉진을 위한 교과목 내 에세이 과제 활용 설계 및 효과 검증’에서 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촉진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

장 교수는 개별 교과목 내에서 자기 표현적 속성의 에세이 쓰기 과제를 활



용하고 학습 주제와 관련한 개인의 경험과 목소리를 이끌어낸 학생들이 대인관계능력 유지에 일정한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질 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통해 대인관계능력 변화를 추적한 결과, 한 학기 동안 6회에 걸쳐 에세이 쓰기 과제를 수행한 실험집단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능력 항목 중 ‘처음 관계 맺기’와 ‘타인의 관점에 대한 논박’ 능력을 유지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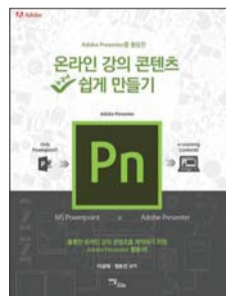
서울사이버대 ‘온라인 강의 콘텐츠 만들기’ 발간

6개 모듈로 Adobe Presenter 설명

서울사이버대는 이성태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콘텐츠팀의 정호진 교수설계 파트담당PM이 공동으로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 쉽게 만들기’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은 교수자 스스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Adobe Presenter에 대해 설명한다. MS 파워포인트 강의원고를 바탕으로 Adobe Presenter를 통해 이러닝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다.

총 6개의 모듈 구성으로, ▲Adobe Presenter 소개 및 프로그램 설치 ▲Audio와 Video 제작기능을 통한 강의용 음성과 영상 제작 및 편집 ▲객체 삽입기능을 통해 비디오와 개체와 시나



리오 상호작용, 영상 파일 가져오기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하기 ▲강의 내용 점검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퀴즈 출제 ▲이

러닝 제작용 템플릿을 통한 디자인 변경 ▲강의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디오 및 온라인 형태의 변환 방법 등 교수자가 직접 온라인 강의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성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러닝 콘텐츠와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된 요즘, 이러닝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20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채용박람회 포스터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비대면 채용박람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총장 이성기)는 7일~11일까지 5일간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에드워드코리아·MEMC코리아 등 지역 중견기업, 아마존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등 20여 곳과 ‘20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충청권 대학 중에선 처음으로 전 과정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은 줌(Zoom), 유튜브 라이브 등 화상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며,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특강 내용 일부는 디브리핑해 온라인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